



서밋 장로교회

SUMMIT PRESBYTERIAN CHURCH

1ST SERVICE: 8:00 AM
2ND SERVICE: 11:30 AM

PRESIDER: REV. PARK, SE KWANG

2025

거침이 없게 하시고
**KEEPING YOU
FROM
STUMBLING**

예배로 영육 성공
**Being Successful
with Worship**

기도로 영육 강건
**Being Healthy
through Prayer**

십일조와 전도로 영육 번성
**Being Flourish
through
Tithe and Evangelism**

† CALL TO WORSHIP

† HYMN 28

† RESPONSIVE READING NO. 10 (Ps.16)

†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HYMN 446

REPRESENTATIVE PRAYER 1ST - ELDER. MOON, SANGWON
2ND - ELDER. YOO, BYOUNGGUN

SCRIPTURE READING **Acts 10:9-23**

CHOIR

SERMON **THOSE WHO GOD HAS MADE CLEAN**

ANNOUNCEMENTS

OFFERING AND PRAYER

† HYMN 212

† BENEDICTION

FELLOWSHIP



서밋 장로교회
SUMMIT PRESBYTERIAN CHURCH

242 E. MIDLAND AVE. PARAMUS, NJ 07652

TEL. 201.944.0554

WWW.SPCNJ.COM

원로목사: 김철연
REV. KIM, CHURL YEON

담임목사: 박세광
REV. PARK, SE KWANG

1부: 8시 / 2부: 11시 30분

인도자: 박세광 목사

† 목 도		다같이
† 기 원		인도자
† 찬 송	28장	다같이
† 교 독 문	10번(시16편)	다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같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446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 문상원 장로 2부: 유병근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0:9-23	다같이
찬 양		찬양대

설 교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자** 박세광 목사

광 고		인도자
헌금기도		설교자
† 찬 송	5장	다같이

† 축 도		설교자
성도의 교제		다같이

예배안내

- (1) 우리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 우리교회는 예배 입장시 헌금을 미리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안내: Venmo @edenpchurch
- (3) 예배 후 말씀포럼이 있습니다.
- (4) 유스그룹 연합예배 (오늘)

알림

1. 교회 행사

- (1) 중직자훈련: 14일(금) 8-10 PM
제목: 권사의 아름다운 직분
강사: 담임목사, 류치영 목사, 정은주 목사
- (2) 초청전도주일: 5월 18일
- (3) 2024년 TAX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 (4) 초청전도주일: 5월 18일

2. 교회 훈련 및 지역모임

- (1) 서밋 기초 합숙 훈련: 3월 21-23일 (금-주일)
훈련신청: 교역자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훈련비: 200불 (숙소 및 식대 포함)
문의: 교역자 및 담임목사
- (2) 동부노회 북부시찰회: 6일 (목)
뉴욕 세계로교회
- (3) 동부노회 단기 의료 선교캠프:
6월 30일-7월 5일, 장소: 페루

알림

3. 친교와 봉사

- (1) 이번주 친교: 교회친교
다음주 친교: 신만재/신현희
- (2) 친교 도움팀 (설거지 및 부엌 뒷정리)
이번주: 1구역
다음주: 2구역

[[서밋기초합숙훈련
온라인 신청 링크]]



03-A 교회셔틀 CHURCH SHUTTLE

- ▷ 담당교역자: 문에디 전도사 MOON, EDDIE ASSISTANT PASTOR(TEL. 973-943-3304)
- ▷ 담당중직자: 박용식 안수집사 PARK, YONG SIK ORDAINED DEACON(TEL. 201-403-8113)

03-B 예배위원 WORSHIP COMMITTEE

	03/09		03/16		03/23		03/30	
	기도	안내	기도	안내	기도	안내	기도	안내
1부	여홍구	원복선	유병근	원복선	이원형	원복선	문상원	원복선
2부	이원형	여홍구/김병주	문상원	여홍구/김병주	여홍구	여홍구/김병주	유병근	여홍구/김병주

04-A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OFFERING

주일헌금	유병근 Eddie & Chris Chin 정경남 박희락 조채운 김민성 김린지 Joseph Park Joshua Park Ryan Ryu 무명 5명
십일조	유병근 김병주/신지영 김학균/홍서연 박숙진 박해민 김민성 박용식/박소라 최정애 이원형/정소은 박희락 정경남 김미영 김효순 심유진 이현경 Esther Yi 무명 3명
감사헌금	심규천/심두리 문에디 심용희 유병근 정경남 김성훈/이지원 김민성 류경 박학수/권윤희 Raffi & Daven
건축헌금	원복선 이원형/정소은 이청학/박숙진 김효순 홍서연 김린지 박용식/박소라 문상원 박해민 김제시카 김민성
성가대 지정	여흥구
다락방 전도	최정애

04-B 서밋의 장년 주중 훈련 및 모임 안내

ZOOM ID: 237 237 1004; PW: summit

요일/시간	화 (10:00A.M.)	수 (10:00A.M.)	수 (7:00PM)	수 (8:00PM.)	토 (10:00A.M.)
훈련	전도제자훈련	성경통독	다민족메시지포럼	종직자대학원	루디아 기도회
장소	ZOOM	렘넌트실/ZOOM	렘넌트실	본당	친교실

04-C 산업선교 모임

- ▷ 뉴저지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AM / iPrime Academy
- ▷ 뉴욕 뉴저지 영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AM / ZOOM

04-D 미주 지역 전도학교

- ▷ NY-NJ-PA 초등부 서밋전도학교 / 매달 둘째 월요일 8:00 P.M. / ZOOM
- ▷ 뉴욕 뉴저지 영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P.M. / ZOOM
- ▷ 미주 대학 전도학교 / 매주 주일 8:00 P.M. / ZOOM

2일(주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의 예배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신령하고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거짓과 탐욕과 허영으로 물든 세상에서 오직 빛으로 삶을 비추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말씀과 안식일의 말씀이 인생의 당대가 되게 하시며, 전도자로 세워진 우리의 걸음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3일(월)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청년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 받고 신앙적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살고 싶은 허탈함이 찾아오기 쉽기에, 주께서 상한 심령과 청년들의 삶을 자비로 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취업으로 인해 낙심한 청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주께서 망대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찬송하며 예배하고 전도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하소서.

4일(화) [전도현장에 있는 군인, 경찰 및 군목들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군목과 군인들, 및 전 주에 흩어져 있는 경찰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소서. 영적문제와 정신문제, 사회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대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섬기는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참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매 시간 매 초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임마누엘과 원니스속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다윗같은 예배와 기도, 전도의 응답을 부어 주소서. 우리교회와 연관된 군목 목사님과 군인 레넌트들에게 24, 25, 00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5일(수) [진정한 회개운동을 위해]

현장은 ASH WEDNESDAY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회개가 시작되게 빛을 비추어주소서. 도덕적, 인간적, 사회적, 종교적인 회개가 있지만, 영적인 무지, 영적 무능력, 영적 실패의 울무와 점술, 네피림, 우상문화, 6가지의 덫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 현실을 회개할 수 없는 우리의 눈뚱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뉴저지 뉴욕을 일깨워주소서. 진정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삶의 각성이 되지 않는 근원적인 위선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소서.

6일(목) [중직자 선출을 위하여]

서밋장로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새벽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뉴저지와 뉴욕에 50개의 지교회와 전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일꾼을 일으켜주소서. 레넌트들이 자신의 전문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300%의 응답을 부어 주소서. 모든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으며,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7일(금) [초청전도주일(5월18일)을 위하여]

5월 18일에 있을 초청전도주일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고통과 방황의 길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초청전도주일을 통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전해지게 하소서.

8일(토) [서밋기초합숙훈련을 위하여]

서밋기초합숙훈련을 받을 모든 훈련생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생의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훈련을 이끄는 담임목사님, 스텝, 조장관 간증자, 모든 프로그램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소서. 기초합숙훈련 이후 현장에서 복음을 아는 자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체현되게, 현장의 문을 열어 주소서.



QR코드로 방문하시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자 (행 10:9-23)

1.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정의(知情意)가 완전하여 깨끗해야 합니다. 그 완전하고 깨끗한 자리에 의외의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셨습니다.

(1) 살인자 사울 (행 9:1-22)

(2) 이방인 고넬료 (행 10:1-43)

(3) 야만인 우리들 (롬 1:14; 엡 2:11; 3:6; 골 1:27)

(4)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을 회복하는 선택된 자가 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2.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케 하는 이방인을 찾으라

(1) 우리의 영적인 시각(스펙트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 영적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성령충만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0:2-4; 9-10)

(3) 영적 축복 뿐만 아니라, 지혜, 경제, 건강, 인간관계에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11-15).

(결론) 행1:8 이 한 줄의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나의 운명과 나의 그릇을 바꿉니다.

THOSE WHO GOD HAS MADE CLEAN (Acts 10:9 -23)

1. To meet God, our intellect, emotion, and will must be complete and clean. There were unexpected people that were invited to that complete and clean place. And God made them clean.
 - (1) Saul the murderer (Acts 9:1-22)
 - (2) Cornelius the sojourner (Acts 10:1-43)
 - (3) The uncivilized, savage people: Us (Rom. 1:14; Eph. 2:11; 3:6; Col. 1:27)
 - (4) We became the chosen ones to restore the chief end of man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1.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2. Just as He asked Peter, God asks the same of us: Find the sojourner that God has made clean
 - (1) We must overcome our spiritual vision (spectrum).
 - (2) We must pra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broaden our spiritual spectrum (10:2-4; 9-10)
 - (3) Then not only spiritual blessings, but the power of the throne will come upon our wisdom, finances,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1-15).

- (Conclusion) Acts 1:8 changes our destinies and our vessels when it comes into our lives.

리딩지저스 READING JESUS

2025년 서밋가족들은 '리딩지저스' 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리딩지저스' 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매일 읽는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구원과 은혜, 역사를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오직 예수 (행1:1),' '오직 하나님 나라(행1:3),' '오직 성령' 으로 복음화(행1:8)를 추구하는 서밋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유익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리딩지저스 안내영상



성경통독 안내(서밋홈페이지)



03.01 토 SAT | 수 Josh. 21-24 (24)

03.02 주일 SUN

03.03 월 MON | 샏 Judg. 1-4 (2)

03.04 화 TUE | 샏 Judg. 5-8 (5)

03.05 수 WED | 샏 Judg. 9-12 (11)

03.06 목 THU | 샏 Judg. 13-16 (16)

03.07 금 FRI | 샏 Judg. 17-21 (17)

03.08 토 SAT | 룻 1-4 (4)

03.09 주일 SUN

03.10 월 MON | 삼상 1Sam. 1-5 (3)

03.11 화 TUE | 삼상 1Sam. 6-10 (7)

03.12 수 WED | 삼상 1Sam. 11-15 (12)

03.13 목 THU | 삼상 1Sam. 16-20 (16)

03.14 금 FRI | 삼상 1Sam. 21-25 (24)

03.15 토 SAT | 삼상 1Sam. 26-31 (26)

03.16 주일 SUN

03.17 월 MON | 삼하 2Sam. 1-4 (2)

03.18 화 TUE | 삼하 2Sam. 5-8 (7)

03.19 수 WED | 삼하 2Sam. 9-12 (12)

03.20 목 THU | 삼하 2Sam. 13-16 (15)

03.21 금 FRI | 삼하 2Sam. 17-20 (19)

03.22 토 SAT | 삼하 2Sam. 21-24 (22)

03.23 주일 SUN

03.24 월 MON | 왕상 1Kings.1-4 (3)

03.25 화 TUE | 왕상 1Kings. 1-4 (3)

03.26 수 WED | 왕상 1Kings. 8-10 (8)

03.27 목 THU | 왕상 1Kings. 11-14 (11)

03.28 금 FRI | 왕상 1Kings. 15-18 (18)

03.29 토 SAT | 왕상 1Kings. 19-22 (21)

03.30 주일 SUN

03.31 월 MON | 왕하 2Kings. 1-4 (4)

✓ 렘넌트를 위한 주중의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1. 서밋 스쿨

기간: 매주 수요일 (5-7시), 금요일 (4-6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 서밋스쿨 교사, 어린이 도우미

담당자: 이청학 전도사



2. 서밋 한국 학교

서밋한국학교에서 2025년 렘넌트들을 찾고 세우는
도우미들을 찾습니다.

기간: 3월 1일-5월 31일 (매주 토요일 12:30~5:30)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 한국학교 교사, 간식 도우미

담당자: 정소은 전도사



3. 대학 전도 학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울 대학전도학교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School of Visual Arts

담당자 및 문의: 이청학 전도사

연락처: 201-359-4251



✓ 모바일 및 온라인 헌금 안내

모바일 헌금은 QR코드를 스캔하셔서,
Venmo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Venmo ID: @edenpchurch



10-A 교회를 섬기는 분들 CHURCH STAFFS

원로 목사 EMERITUS PASTOR	김철연 KIM, CHURL YEON	213-503-7627
담임 목사 SENIOR PASTOR	박세광 PARK, SE KWANG	215-290-6774 SPARK@SPCNJ.COM
교육 전도사 STUDENT PASTOR	정소은 JEONG, SO EUN	201-233-5057 SJEONG@SPCNJ.COM
	문에디 MOON, EDWARD	973-943-3304 EMOON@SPCNJ.COM
	이철학 LEE, JASON	201-359-4251 JLEE@SPCNJ.COM
장 로 ELDERS	유병근 YOO, BYUNG KUN 이원형 RHEE, WON HYUNG	문상원 MOON, SANG WON 여홍구 YEO, HONG GU
협동 장로 ASSOCIATE ELDERS	김근필 KIM, KEUN PIL	심규천 SIM, KYU CHEON
지휘자 CONDUCTOR	이충훈 LEE, CHOONG	
반주자 ACCOMPANISTS	고수정 KOH, SOO JEONG	신지영 SHIN, JIYOUNG

10-B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 FELLOWSHIP HOUR

주일1부 SUNDAY 1ST SERVICE	8:00 AM	본당 SANCTUARY	태영아부 NURSERY DEPARTMENT	주일 SUN. 11:30 AM	태영아실 NURSERY ROOM
주일 2부 SUNDAY 2ND SERVICE	11:30 AM	본당 SANCTUARY	유초등부 ELEMENTARY DEPARTMENT	주일 SUN. 11:30 AM	유초등부실 CHILDREN ROOM
OPEN WORSHIP	10:00 AM	본당 SANCTUARY	중고등부 YOUTH GROUP	주일 SUN. 11:30 AM	렘넌트실 REMNANT HALL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8:00 PM	본당 SANCTUARY	대학청년부 COLLEGE & YOUNG ADULT	주일 SUN. 1:40 PM	렘넌트실 REMNANT HALL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MEETING	8:00PM	본당 SANCTUARY	산업선교 BUSINESS MISSION	토 SAT. 8:00 AM	iPrime (Fort lee)
새벽기도회 (월-금) EARLY MORNING PRAYER	6:00 AM	본당 SANCTUARY	한국학교 KOREAN SCHOOL	토 SAT. 1:30 PM	소예배실 SMALL SANCTUARY
237 다락방 237 DARAKBANG	수 WED. 7:00 PM	렘넌트실 REMNANT HALL	렘넌트연합예배 REMNANT JOINT SERVICE	세째주일 THIRD SUN	렘넌트실 REMNANT HALL

WWW.SPCNJ.COM

242 E. MIDLAND AVE.

PARAMUS, NJ 07652

TEL. 201.944.0554

summitpchurch@gmail.com



SUMMIT CHURCH OF PARAMUS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 모세 (시편 90)

오른쪽 그림은 내가 대학원 시작 전에 간 유럽 배낭여행 중에 깊이 감명 받았던 그림으로 네덜란드인 화가 피터 크라에즈가 그린 "허무"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해골, 시계, 거꾸러진 잔, 방금 꺼진 양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등을 통해 표현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림에 묘사된 이들 사물들은 내게는 모든 이들이 대면하기 꺼려하는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되새기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인생 노정 마지막에 다가오는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죽음이라는 그 말만으로도 공포를 느끼지요. 그 공포를 피하려 순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거나, 성공, 부, 가족이나 친구를 생의 낙 또는 목표로 두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성찰을 통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적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 극작가이자 무신론자인 서머셋 모옴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인생 목적에 대해 당신 자신이 정의를 내려야 한다. 만일 죽음이 모든것의 끝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며 또 너무나 불쾌한 실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인생 또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숙고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절 이미 엄청나게 성공하여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어마어마한 부,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았지요 (전도서 1:13).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결국 사람들 각자 자신의 원대로 행복을 쫓아 살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에서 성공, 학업을 통한 성취, 물질적 부의 축적 혹은 참된 사랑의 쟁취를 통해 나름대로 행복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삶이 덧없고 죽음이라는 확실한 끝이 기다리고 있다해도 사람은 누구나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이 행복을 쫓기위해 어떤 때는 힘든 결정을 내리거나 끊임없는 투자를 아낌없이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인생을 바칠만한 일은 없다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전도서 1:2). 새 옷, 새 자동차, 새 핸드폰도 한 주만 지나면 새롭다는 느낌이 사라지게 마련이듯, 육신적 아름다움이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위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명성이 퇴색되고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랜기간 부지런히 일하고 투자해 축적된 부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모조리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인이 죽고나면 다른 사람에게로 상속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것이 헛되다고 한탄했던 솔로몬은 절망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지식에 근거하여,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3:11). 솔로몬이 아는 인간은 우주안에서 어떤 작용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몇백만년 포유류의 한 종류로 진화한 동물 또한 아니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영원히 함께하며 축복하기 위한 영적 유일성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만약 인간이 창조자로부터가 아니라 창조물로부터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 인생은 결국 불만족과 불충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인간에게 있었던 참된 행복은 이제 공허한 흔적만이 남은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이 공허를 매꾸려고 쓸모없는 노력을 계속한다. 하지만 끝도없는 암흑같은 공허를 채울만한 무한대의 불변적 물건은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공허가 매꿔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나 돈, 가족과 친구들이 인생에 아무 의미 없고 버려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인들과 헌신적이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전도서 2:24)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에서야, 인생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질문하게 되었든 간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결국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깊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때 세상의 어떤것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알게 됩니다

